

프랑스 여성 디아스포라 : 누벨 프랑스의 왕의 딸들

김 경 랑
(인하대학교)

I . 들어가며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620년 영국 남부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 호에는 영국의 청교도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고 있었다. 그 후 43년 후 프랑스에서는 36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아메리카의 누벨 프랑스¹⁾, 곧 지금의 퀘벡 지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영국의 개척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불안과 기대 속에서 신천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들이 바로 “퀘벡의 어머니”²⁾로 평가되는 ‘왕의 딸들’³⁾이다.

2013년 8월 7일, 퀘벡에서는 “누벨프랑스 축제 : ‘왕의 딸들’이 고향으로 (Fêtes de la Nouvelle-France: les Filles du Roy à la maison)”라는 이름의 축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거행된 이 축제는 프랑스

-
- 1) 누벨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프랑스의 식민지로 오늘날의 캐나다에 해당함을 주지하는 바다.
 - 2) 퀘벡 시장 Agnès Maltais는 “그들(왕의 딸들)이 바로 퀘벡의 어머니이다Ce sont les mères de la nation québécoise”라고 2013년 축제 개최식장 연설에서 언급하였다.(La Presse, Soleil, 2013.08.07자 기사 참조)
 - 3) roi의 옛 프랑스어. 왕의 딸(filles du roy)에 관한 대부분의 책과 자료들에서 여전히 이 어휘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계 캐나다인들의 모태가 되는 ‘왕의 딸들’이 캐나다에 온지 350년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그녀들이 “퀘벡의 어머니”로서 퀘벡 사회에서 행한 역할과 퀘벡에 미친 역사적 공헌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행된 것이다.

1663년 36명의 프랑스 여인은 111일간의 항해를 통해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의 누벨프랑스에 도착했다. 이들이 바로 ‘왕의 딸들(Filles du roi)’, 오늘날 퀘벡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조상들이다. 1663년부터 1673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왕의 딸들’이라는 이름으로 약 900명의 프랑스 여인들을 누벨 프랑스로 이주시켰다. 과연 이 여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눈 덮인 야만인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본 연구는 해외로의 여성 이주가 흔하지 않았던 17세기에, 당시 불모의 땅 캐나다에서 디아스포라⁴⁾로 살아야 했던 프랑스 여인들의 정체성과 이들이 캐나다에서 미친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프랑스 여성 디아스포라의 배경이 되는 16-17세기 프랑스 정세

1.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과 누벨프랑스

왕의 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프랑스 여성 디아스포라의 배경이 된 17세기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시대적 이해가 필요하다. 프랑스가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1534년,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1491~1557)는 프랑수와 1세의 후원으로 탐험을 떠나 대서양의 북아메리카에 도착한다. 그의 탐험 목적은 금과 귀중한 자원이 있는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고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자크 카르티에는 총 3번에 걸쳐 북아메리카를 탐험한다. 1534년, 첫 탐험에서 발견한 새로운 땅, 가스빠(Gaspé⁵⁾)에 그는 백합꽃 무늬의 휘장과 ‘프랑스 왕 만세(VIVE LE ROY DE FRANCE)’라고 새겨진

4) 대문자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본래 “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소문자 보통명사로 사용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5) 오늘날 퀘벡의 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십자가를 꽂는다. 두 번째 탐험(1535- 1536)에서는 오늘날 퀘벡의 한 지역인 스타다코네(Stadaconé⁶⁾)에 도착하여, ‘신의 은총으로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가 지배하다(François premier, par la grâce de Dieu, roi des Français, règne.)’라는 글이 새겨진 십자가를 꽂아 놓는다. 이 십자가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르티에는 프랑수와 1세에게 이 현장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스타다코네 마을의 이로쿼이족(Iroquois) 부족장인 도타코나 Donnacona를 납치해 데려갔다. 그 후 누벨 프랑스를 향한 자크 카르티에의 세 번째 탐험은 1541년에서 1542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캐나다의 실제적인 식민지배는 사무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왜냐하면 자크 카르티에의 3번에 걸친 탐험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까지는 누벨 프랑스에 프랑스인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정착촌은 사무엘 드 샹플랭에 의해 1604년에 처음 아카디아(Acadie(현재 캐나다 동부의 뉴브런즈윅(Nouveau-Brunswick)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île du Prince-Eduard)에 해당)에서, 1608년에는 퀘벡 시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627년, 누벨 프랑스 회사(La Compagnie de la Nouvelle-France)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퀘벡에 약 60명, 아카디아에 약 40명 정도, 즉 100명 정도의 프랑스인들이 거주하였다.

1712년의 전성기 때의 누벨 프랑스 영토는 북아메리카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한다. 펀들랜드에서 로키 산맥까지, 그리고 허드슨 만에서 멕시코에까지 이르렀다.⁷⁾ 누벨 프랑스는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졌는데, 현재의 퀘벡

6) 오늘날 퀘벡의 한 마을로 자크 카르티에가 도착했을 당시 이로쿼이 족이 살던 곳이다.

7) [1700년 이전의 누벨 프랑스] (<http://www.axl.cfan.ulaval.ca/francophonie>)



과 온타리오에 해당하는 캐나다, 루이지아나(Louisiane, 현재 미국의 중서부 지역) 그리고 아카디아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영국과의 식민지전쟁에서 패배하고 1673년 파리 조약(Traité de Paris)이 체결되면서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지역에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건설한 누벨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영국에 양도된다. 이때부터 누벨 프랑스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페르낭 뒤몽 Fernand Dumont이 말하듯이 “프랑스 관리들과 소수의 엘리트층은 떠나고”¹⁰⁾ 그곳에 남은 프랑스계 이주민들과 자손들은 “피식민자colonisé”¹¹⁾의 위치로 전락하면서 삶을 위한 고투를 시작한다.

결국 누벨 프랑스의 실질적인 식민지배는 1608년 샹플랭이 퀘벡에 프랑스인들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시작한 이래, 1760년 프랑스가 누벨 프랑스를 스페인과 대영제국에 할양할 때까지의 기간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부를 찾아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데 힘을 쓰며 어업과 모피무역을 위해 동부 캐나다에 정착촌들을 세우게 되는데, 프랑스도 이에 동참하며 모피사업을 목적으로 누벨 프랑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1608년 퀘벡에 도착한 샹플랭은 다이아몬드 만(Cap Diamant) 아래에 퀘벡 주거지를 건축하게 한다. 이 지역이 모피 사업을 위해 적절한 전략적 위치라 생각한 그는 퀘벡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우리의 주거지를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았으나, 야만인들이 퀘벡이라 부르는 이 지역만큼 안락하고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없다. 이곳은 호두나무와 포도나무가 가득하다. 나는 나무들을 베고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우리 일꾼들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우리가 지은 첫 번째 건물은 상점이다”⁸⁾

8) “Je cherchai lieu propre pour notre Abitation, mais je n'en pus trouver de plus commode, ni mieux situé que la pointe de Québec, ainsi appelée des Sauvages, laquelle était remplie de noyers et de vignes. Aussitôt, j'employai une partie de nos ouvriers à les abatre pour y faire notre Abitation. La première chose que nous fîmes fut le magasin.”(<http://echo.franco.ca/>)

이를 시작으로 식민 초기에는 최소한의 투자를 했던 프랑스가 루이 14세의 식민지 확장 정책에 힘입어 이민을 권장하고 인구를 늘리고자 노력한다. 1628년에는 '36개월 이민(L'immigration du 36mois)'이 생겨났는데, 이는 농부나 석공, 대장장이 등의 기술을 지닌 남자들을 누벨 프랑스 지역의 건축과 개척을 위해 36개월간 머물게 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그 곳에 남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권장하였다. 이처럼 당시 프랑스가 해외로 힘을 확장하던 17세기 초, 식민지로서의 이민은 미개간지의 개척과 건물의 건축, 농사 등을 위해 주로 남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2. 누벨 프랑스와 캐나다, 각 명칭의 어원

‘누벨 프랑스’라는 이름은 이탈리아 탐험가 조반니와 지롤라모 다 베라차노 Giovanni et Girolamo da Verrazzano, 1485년~1528년) 형제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다. 1524년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 François 1er의 의뢰로 북아메리카 대서양 해안을 탐험하게 된 조반니는 오늘날의 뉴펀들랜드⁹⁾에서 뉴잉글랜드¹⁰⁾에 이르는 지역을 발견하고는, 프랑스와 1세에게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 라틴어로 ‘Francesca’, 혹은 ‘Nova Gallia (Nouvelle-Gaule)’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이 지역은 100여 년 동안 여러 항해사들과 책의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명칭¹¹⁾으로 불리게 된다. Nova Francia, Nouva Franza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다가, 결국 사무엘 드 샹플랭이 1607년에 제작한 자신의 지도¹²⁾에 누벨 프랑스라는 이름을 적어 넣은 이래, 모든 지도에서 이 이

9) 프랑스어로는 ‘la Terre-Neuve’로 현재 캐나다에 속하는 섬 중 하나이다.

10) 프랑스어로는 la Nouvelle-Angleterre로 미국 북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구릉성 산지와 해안지방으로 매사추세츠 주, 코네티컷 주, 로드아일랜드 주, 버몬트 주, 메인 주, 뉴햄프셔 주의 6개 주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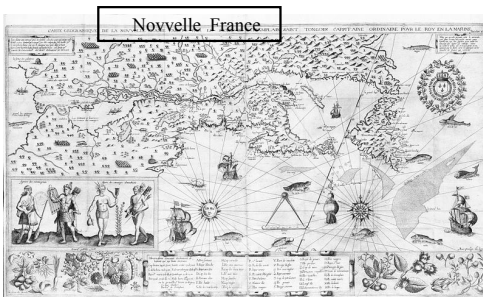
11) 1527년 마지올로 Magiolo는 프랑수와 1세를 기리기 위해 프란체스카 Francesca로, 1556년 가스탈디 Gastaldi désigne는 노바 프란시아 Nova Francia로, 1556년 잘티에리 Zaltieri는 노바 프란자 Nova Franza라고 하였다.

12) 당시에는 ‘Nouvelle France’로 기록되어 있다. ‘위키페디아 사전’에는 1612년의 지도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에 의하면(Histoire du français au Quebec, Fondation Concept Art multimédia...) 1607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름을 사용하게 된다. 1609년 마르크 레스카르부Marc Lescarbout가 지은 이 지역의 역사책 『누벨 프랑스의 역사*Histoire de la Nouvelle-France*』에서도 누벨 프랑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상플랭은 누벨 프랑스라는 명칭 외에도 현재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온타리오의 오대호(des Grands-Lacs), 세인트 로렌스 강(le fleuve Saint-Laurent), 대서양 해안(la côte Atalantique) 등, 여러 지명에 프랑스어의 흔적을 남겼다. 또한 ‘퀘벡’이라는 말 역시, 그 어원을 보면 ‘정박하다 débarquer’라는 뜻의 képak이라는 그곳 원주민의 말을 상플랭이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¹³⁾.

반면에 ‘캐나다Canada’는 자크 카르티에에게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어식 발음의 ‘카나다’는 이로쿼이족의 ‘마을(village)’이란 의미를 지닌 “kanata”라는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 1534년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Saint-Laurent 계곡을 여행하던 중, 그곳의 원주민 이로쿼이족의 두 청년이 스타다코네Stadaconé 마을로 가는 길을 가리키며 kanata라고 말한 것을 카르티에는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프랑스어 발음인 캐나다Canada라는 호칭을 붙였다. 세인트 로렌스강도 ‘캐나다 강(la rivière de Canada)’이라고 이름지었던 것이, 이후 캐나다라는 명칭이 훨씬 넓은 영토를 가리키게 되었고, 1547년의 지도에는 세인트 루이스 북부를 아우르는 전 지역을 일컫게 되었다.



[1607년 상플랭이 제작한 누벨프랑스 지도]

(http://www.axl.cefan.ulaval.ca/francophonie/Nlle-France_acc.htm)

13) Fondation Concept Art multimédia.

3. 프랑스인에게 비친 누벨 프랑스

당시 누벨 프랑스는 본토 프랑스인들에게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을 혹독한 기후와 더불어 아메리카 인디언들인 야만인에게 노출된 곳이며, 자크 카르티에가 발견한 “카인의 땅(terre de Caïn)”이고 후에 볼테르Voltaire가 “눈의 영지(quelques arpents de neige)”라고 말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프레보Prévot신부가 쓴『마농 레스코Manon Lescault(1731)』에서 기사 데그리외(chevalier des Grioux)가 누벨 프랑스의 남부에 속했던 루이지아나를 ‘아메리카의 야만의 땅(une terre sauvage d'Amérique)’이라고 가리키는 것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트와 리비에르Trois-Rivières의 총독이었던 피에르 부셰Pierre Boucher(1622-1717)는 『누벨 프랑스, 즉 캐나다의 관습과 생산의 자연스럽고 진실된 이야기L'histoire véritable et naturelle des mœurs et productions du pays de la Nouvelle-France, vulgairement dite le Canada』에서 프랑스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이로쿼이족인데, 이들은 왕의 군대가 싸워 이길 수 있다. 둘째는 모기들(maringouins)로, 연기와 바람을 이용해 모기들은 쫓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요소가 바로 길고 긴 눈 덮인 겨울이라고 했다.¹⁴⁾

캐나다인¹⁵⁾과 프랑스인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은 1699년 모르빠Maurepas

14) “La première incommodité, ce sont les Iroquois, nos ennemis, qui nous tiennent concentrés de si près qu'ils nous empêchent de jouir des commodités du pays: on ne peut aller à la chasse ni à la pêche de crainte d'être tué ou pris de ces coquins-là. (...) La seconde incommodité que je trouve ici, ce sont les maringouins, autrement appelés cousins, qui sont en grande abondance dans les forêts, pendant trois mois de l'été : (...)qu'ils peuvent résister au vent ; car le moindre petit vent les emporte : (...) la fumée les fait fuir ; c'est pourquoi on fait toujours du feu et de la fumée proche de soi, quand on couche dans le bois. (...) La troisième incommodité que je rencontre, c'est la longueur de l'hiver, surtout devers Québec. (...) je dirai seulement que les neiges y sont de trois ou quatre pieds de haut, je dis à Québec (...)”(Pierre Boucher, 1664) (<http://www.axl.cefan.ulaval.ca/>)

15) 여기서의 캐나다인은 오늘날의 퀘벡 지역과 온타리오 지역 사람들을 의미한다.(주 9 참조)

장군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다. 1699년 1월 21일에 모르빠 장군이 보방Vauban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당시 캐나다인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

“프랑스인들과 캐나다인들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프랑스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혼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살아가는 방법과 감정도 다르며, 자유와 독립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는 야만성과 결합된 억제할 수 없는 잔인함(가혹함)이 있다.”¹⁶⁾

이처럼 캐나다는 자연환경이나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있어 프랑스인들에게는 낯설고 거친 곳으로 전혀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아무리 유럽에서 전쟁이 창궐하고 경작지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더라도 당시 백성들은 ‘야만인(sauvages)’이 살고 있는 미지의 땅으로의 모험보다는 프랑스 본토가 더 낫다고 여긴 듯하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3년부터 1673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왕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누벨 프랑스로 이주한 프랑스 여성은 약 900명에 이르렀다. 이는 누벨 프랑스가 프랑스 식민기간인 150년 동안 대서양을 건넌 총 프랑스 여성의 5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이다.¹⁸⁾

4. 프랑스 여성의 이주가 요구되는 누벨 프랑스

1663년 왕의 칙령¹⁹⁾에 의해 누벨 프랑스는 프랑스 왕의 식민지가 되고 프랑스의 한 지방으로 관리된다. 왕은 아메리카 인디언들 및 영국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면서 군대 또한 적절히 지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16) “On ne doit pas regarder les Canadiens sur le même pied que nous regardons ici les Français, c'est tout un autre esprit, d'autres manières, d'autres sentiments, un amour de la liberté et de l'indépendance, et une férocité insurmontable contractée par la fréquentation continue qu'ils ont avec les Sauvage.”

17) <http://ledecoublogue.com>.

18) <http://nbertrand.weebly.com/dossier-2> 참조.

19) Archives nationales, Fonds des Colonies. Série C11A. Correspondance générale, Canada, roi de France, Édité du roi Louis XIV érigeant la Nouvelle-France en province royale, 1663, vol. 2, fol. 5-7.

군인 출신의 장 딸롱Jean Talon을 총독으로 지명한다. 그 후 150년 이상 누벨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의 중심지에서 오대호와 북미의 미시시피 계곡의 상부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다.

식민 초기에는 생 로랑 계곡이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투자만을 행해왔던 프랑스는 17세기 중엽부터, 앞서 언급했던 ‘36개월간의 이민(l’immigration du 36 mois)’과 같은 정책으로 이주를 장려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주’라는 사회 현상은 주로 남성들에게만 행해졌고 누벨 프랑스의 남녀 성 비율은 지나치게 남성에게 기울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2세 출생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1665년 장 딸롱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3000명의 인구 중, 719명의 미혼 남성에 단지 45명의 미혼여성이 있었다.²⁰⁾ 더욱이 1665년에는 카리냥-살리에르Carignan-Salières 군단의 2200명 가량의 군인이 이로쿼이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누벨 프랑스로 오게 되었고 이들 중 약 500명 정도가 그곳에 남는 것에 동의하면서, 누벨 프랑스의 남녀 성비는 더욱 남성 위주로 지나친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정상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인구를 증식시킴으로써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프랑스, 곧 누벨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는 고심을 하게 된다. 결국 본토 프랑스로부터 프랑스 여인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이 고안되고,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여인들을 모집하여 옷가지와 바늘 도구 등의 생활필수품, 그리고 항해 비용과 결혼 지참금을 제공한다. 그 대신 그녀들은 누벨 프랑스에 가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일종의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프랑스의 여성 디아스포라가 탄생한 것이다. 그녀들이 바로 ‘결혼할 여인들(filles à marier)’, 후에 ‘왕의 딸들’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오늘날 퀘벡의 모계 조상들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누벨 프랑스에 여인들을 보내고 프랑스 정착 인구를 통한 식민지 개척을 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7세기 이 지역은 모피산업과 어업활동을 통해 연간 2천만 리브르(vingt millions livres)라는 막대한 돈을 루이 14에게 가져다주었다.²¹⁾ 때문

20) Un peu de secret des filles du roi(<http://www.immigrer-contact.com>)

에 그 곳 원주민들과 영국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필요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프랑스 여성 디아스포라의 배경에는 누벨 프랑스를 통한 프랑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왕의 딸들’, 그녀들은 누구인가?

1. 명칭의 의미와 기원

“왕의 딸들”²²⁾이란 1663년에서 1673년 사이에 프랑스 왕(당시 루이 14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프랑스에서 누벨 프랑스로 이민 온 미혼 여성 혹은 미망인들을 일컫는다. 그녀들은 누벨 프랑스에 식민지 개척을 위해 남아있는 프랑스 남성들과 결혼할 목적으로 모집된 여인들²³⁾로서, 국가와 종교단체를 통해 누벨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처음 모집될 때의 명칭인 ‘결혼할 여인들filles à marier’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식민지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이주의 목적이었다. 누벨 프랑스의 총독 장 딸롱이라든가, 본토의 콜베르Colbert 장관이 주고받은 편지 및 그 외 국가 행정자료에는 ‘결혼할 여인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결혼과 자녀생산의 목적으로 이주하였음은 당시 누벨 프랑스의 장 딸롱 총독이 본토의 콜베르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왕의 딸들은) 자녀 출산에 적합하고 혜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곳의

21) 퀘벡에서의 프랑스 역사(<http://www.axl.cefan.ulaval.ca>, pp. 9-10)

22) “Les Filles du roi sont des femmes célibataires et quelques veuves dont le roi favorise la migration en Nouvelle-France entre 1663 et 1673.”(캐나다 백과사전 참조 <http://www.encyclopediecanadienne.ca>)

23) “(...) définit filles du roi comme «étant immigrés, des jeunes filles ou des veuves, à venir au Canada de 1663 à 1673 inclusivement et ayant sans doute bénéficié de royale soutien dans leur transport ou leur établissement, ou l'un et l'autre”(24 Landry, mon traduction).

혹독한 자연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 건강해야 합니다. 전원에서의 일을 견딜 만큼 건강해야 하며 손재주도 있어야 하고 특히 수태가 가능해야 합니다.”²⁴⁾

그 외에도 “나이는 16-40세로 미친 사람이나 불구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도 기본적으로 외모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시골처자여야 하며 땅을 경작하고 기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강함을 지녀야 한다는 모집 조건들이 있다.”²⁵⁾

오늘날 그녀들에게 붙여진 왕의 딸이라는 명칭은 1698년, 성녀 마그리트 부르주와 Marguerite Bourgeoys(1620-1700)²⁶⁾가 쓴 자서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프랑스 출생으로 가톨릭 선교 사업을 위해 누벨 프랑스로 건너온 마그리트 수녀는 1658년 오늘날의 몬트리올 Montréal에 노트르담 교구(Le Congrégation de Notre-Dame)²⁷⁾를 창설하여 여성들의 신앙생활과 교육을 선도하였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온 700여명의 여인들을 수녀원에 맞아 돌보아 주고 교육시켰다. 왕의 딸들은 누벨 프랑스에 도착해서 짧게는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하기 전까지 이 수도원에서 지내며 보호를 받고 '식민지의 여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요리와 강가에서 빨래하는 법 그리고 바느질하는 방법과 자녀를 양육법을 배웠다. 당시 '왕의 은혜와 도움으로 자라난' 고아들에게 붙여지는 “왕의 자녀들(les enfants du roi)”이란 호칭과 대비해서, 왕의 후원을 받고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프랑스 이주 여성들에게 ‘왕의 딸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²⁸⁾

24) 퀘벡에서의 프랑스 역사, <http://www.axl.cefan.ulaval.ca>, p. 25.

25) “les filles du roy devaient être âgées entre 16 et 40ans, et n’être ‘point folles’ ni ‘estropiées’. En principe, il fallait de ‘jeunes villageoises n’ayant rien de rebutant à l’extérieur et assez robustes pour résister au climant et à la culture de la terre.’”(http://www.axl.cefan.ulaval.ca 참조)

26) 그녀는 1982년 장폴 2세 Jean-Paul II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27) “Cette foi est orientée à poursuivre la mission de ce Jésus : révéler au monde le grand amour de Dieu pour l’humanité et appeler les humains à vivre dans l’amour de Dieu et de leur prochain afin que le monde soit plus beau et les gens plus heureux. fondée au 17e siècle par Sainte Mar-gue-ri-te Bourgeoys, pionnière de la Nouvelle-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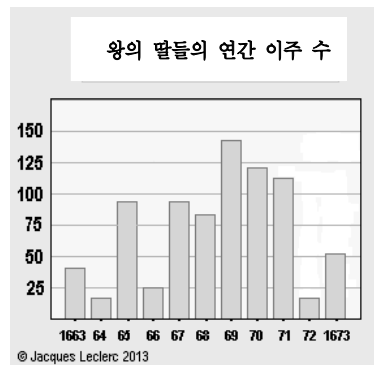
28) Landry, Yves, *Les filles du roi au XVIIe siècle, Orphelines en France, pionnières au Canada*, Montréal, Edition Leméac, 1992, p. 20.

2. 왕의 딸들의 신분

왕의 딸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가난’이라 할 수 있다. 왕의 딸들 대부분이 ‘파리 제네랄 병원’²⁹⁾ Hôpital Général de Paris의 기숙생들이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루이 14세의 프랑스 왕정 체제 하에서 이곳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 걸인이나 고아들, 정신 이상자나 불구자들 그리고 매춘부들을 수용하는 국립 보호 기관이었다.”²⁹⁾ 따라서 왕의 딸로 선택된 대부분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누벨 프랑스로의 이주를 운이 좋은 것이라 여겼다. 그 중에는 ‘좋은 집안 출신의 여자들’도 있었는데 경제력이 없는 경우, 딸들을 이 기관에 맡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부르주와 출신의 여성들이 여기 속하는데, 그녀들은 대체로 귀족부인들을 시종들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신체도 그리 건장한 편이 아니어서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식민지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벨 프랑스로 보내지는 초기, 왕의 딸들은 파리지역 출신들의 여인들로 주로 구성되었으나 후반기에는 파리 이외의 다른 지역출신들이 보내진다. 왕의 딸들로 선택된 여인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분류 및 10년 동안의 연간 이주 여성 수는 다음과 같다.

출신 지역	이주 여인의 수
파리	327
노르망디	127
서부	102
모름	62
동부	59
르와르	43
북부	20
브르타뉴	13
중심	7
남부	4
다른 지역	6
전체	770

[왕의 딸들의 출신 지역 분포]³⁰⁾



[왕의 딸들의 연간 이주 수]³¹⁾

29) 위키 페디아.

장 딸롱의 요구에 따라 “남자처럼 일하기에 적합한(*propres au travail comme les hommes*)”³²⁾ 여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1670년대부터는 도시보다는 시골 출신의 여성들 중 수태 가능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왕의 딸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대부분이 미혼 여성이었고 5%는 미망인이었으며 96%가 16세에서 40세 사이였는데, 이는 출산을 염두에 둔 나이 제한 조건에 기인한다. 당시 법적 혼인 연령은 여자의 경우 12세였다고 한다. 여인들의 개인적인 정보는 결혼을 담당했던 공증인과 신부들의 기록에 의해 남겨져있다.

1663년에서 1673년까지 누벨 프랑스로 이주한 약 900명의 프랑스 여인들 중 770명이 이곳에 남아 가정을 꾸렸고 약 100명의 여인은 대서양을 지나면서 사망하거나 다시 고국 프랑스로 돌아갔다. 1663년에서 10년 동안 누벨 프랑스에서는 835건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그 중 770건의 결혼식 신부가 왕의 딸들이었다.³³⁾

왕의 딸들은 ‘트렁크의 여인들(*filles à la cassette/coffre*)’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그녀들이 배를 타고 이주할 당시, 왕으로부터 옷가지와 생필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선사받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로 가서 가정을 꾸민 후,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그녀들에게 주어진 일인 만큼 가방 속에는 가사 일을 위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타프타 손수건, 리본, 100개의 바늘, 머리빗, 하얀 실, 스타킹 한 벌, 장갑 한 벌, 가위, 칼 2개, 여러 개의 옷 뻐, 모자, 4개의 끈 등³⁴⁾”이 들어 있었다. 이 외에도 왕의 딸들에게는 그녀들의 여행경비가 지불되었다. 지불된 경비는 그녀들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100리브르(5명에게)에서 500리브르(2명에게)가 제공되었

30) Landry, Yves. *Les Filles Du Roi Au XVIIe Siècle : Orphelines En France, Pionnières Au Canada. Suivi d'Un Répertoire Biographique Des Filles Du Roi*. Ottawa: Leméac, 1992, p. 54.

31) Histoire du français au Québec, <http://www.axl.cefano.ulaval.ca/27>.

32) *Ibid.*

33) *Ibid.*

34) Maud Sirois-Belle, «Les Filles du Roy, des bords de Seine au Saint-Laurent», Commission franco-québécoise sur les lieux de mémoires communs, Mémoires vives, Bulletin n° 32 (juin 2011).

다. 이것은 노동자의 200일치 노동 값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50리브르를 받거나 100일치의 노동 값을 받았다. 그 당시 누벨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연간 40-120리브르를 받았는데, 당시 1리브르는 오늘날 약 10-15유로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50명 미만의 여인이 왕위군의 장교나 고위 관리와 결혼하기 위해 많은 지참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3. 왕의 딸들에 대한 타인의 시선

왕의 딸들이 누벨프랑스에 도착하였을 당시, 그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던 듯하다. 여성의 해외 이주가 흔하지 않았던 당대에 불모의 땅에 국가로부터 지참금을 받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그녀들을 소위 곱게 자란 양가집 규수로 볼 수는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파리 출신의 ‘왕의 딸들’ 중 240명이 파리 제네랄 병원의 살페트리에르Salpêtrière출신이라는 점³⁵⁾이 그녀들로 하여금 매춘부라는 왜곡된 평판을 받게 한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살페트리에는 파리 제네랄 병원의 가장 큰 병동으로 고아들과 결인들 그리고 매춘부 및 극빈자 여성들을 감금하는 보호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퀘벡 자료들에 따르면, 누벨 프랑스에 보내진 여성들은 살페트리에에 머물던 고아들로서, 파리 극빈자로서의 삶의 탈출구로 거칠고 험난한 누벨 프랑스로의 모험을 선택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왕의 딸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실제 왕의 딸들이 이주할 당시의 증인도 없고 관습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누벨 프랑스에 여행하고 머물렀던 여행자들과 관리들에 의해 정보가 와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683년부터 1692년에 테흐네브Terre-Neuve에 거주했던 군인이며 모험가였던 라웅땅Lahontan 남작의 비방에 큰 영향을 입었다. 1703년에 발간된 25개의 편지로 구성된 『라웅땅 남작의 새로운 여행Les Nouveaux Voyages du baron de Lahontan』이란 작품은 왕의 딸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왕의 딸들이 결혼을 위해 간택되는 장면을 “푸주

35) Histoire de français au Québec : colonie du Canada, (<http://www.axl.cefan.ulaval.ca/>)

한이 양떼 가운데서 양을 고르는 것”³⁶⁾에 비유함으로써 왕의 딸들의 위상을 매춘부(*filles de joie*)로 까지 격하시켜 버렸다. 그런데 라옹땅 남작이 누벨 프랑스에 도착한 것은 1683년도로, 마지막 왕의 딸들의 무리가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서이다. 즉 마지막 왕의 딸들이 이미 결혼해서 한 가정의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라옹땅 남작은 그가 직접 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³⁷⁾ 곧 편견에 의한 자신의 상상에 기초해 왕의 딸들을 묘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풍문은 현실과 완전히 다르게 묘사됨으로써 프랑스 출신의 캐나다인들의 근원을 비하시켰으며 것처럼 잘못된 풍문은 300년 이상 계속되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자신들의 과거를 모르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 의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최근까지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안 가스니에 Anne Gasnier(1611-1698)라는 퀘벡 출신의 여인이 왕의 딸들을 선정하기 위한 책임자로 임명되어 프랑스에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다.³⁸⁾ 즉 왕의 딸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엄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험난한 누벨 프랑스의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할 신체적 조건과 함께 ‘새로운’ 프랑스의 미래를 담당할 어머니로서의 그녀들의 자격을 심사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녀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 또한 그녀들이 결혼을 위해 적절한 여인임을 뒷받침해준다. 그녀들은 누벨프랑스에 도착한 후 4-5개월 만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식은 대체로 9, 10, 11월에 종교 축일에 본당 신부 앞에서 맞추어 거행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 축복해 주어야 할 신부(神父)마저도 신부(新婦)의 신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를 망설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670년 장 딸롱

36) “les époux choisissent... de la manière que le boucher va choisir les moutons au milieu d'un troupeau.”(<http://bnf.fr/dossiers/html/dossiers/>)

37) Dumas, Silvio, *Les filles du roi en Nouvelle-France : étude historique avec répertoire biographique*, Québec, Société historique de Québec, 1972, pp. 3-9.

38) Histoire du français au Québec : colonie du Canada (<http://www.axl.cefan.ulaval.ca/>)

은 본국의 장 바티스트 콜베르Jena-Baptiste Colbert 장관에게 편지를 쓰기에 이른다. 누벨 프랑스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출신 지역의 사제나 판사로부터 그녀들이 결혼함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누벨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명시하였다.³⁹⁾ 이에 대해 콜베르 장관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

“나 또한 그녀들이 남편 없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결혼함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녀들 출신 지역의 인증서를 보내도록 명령하겠습니다.”⁴⁰⁾

왕의 딸들 대부분이 가난한 가정의 출신임은 역사적 기록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이고 그녀들이 누벨 프랑스에서 행한 결혼 방식은 당시 17세기에 행해진 일반적인 결혼 방식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그녀들이 퀘벡 역사에 미친 가치와 공헌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왕의 딸들의 역할과 현대적 의미

물질적으로 어렵고 최소한의 안락함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 시기에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왕의 딸들은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그녀들은 누벨 프랑스가 프랑스 식민지로 있는 기간 동안, 이곳에 이민 온

39) “Si le Roi fait passer d’autres filles ou femmes veuves de l’ancienne en la nouvelle France, il est bon de les faire accompagner d’un certificat de leur curé ou du juge du lieu de leur demeure qui fasse connaître qu’elles soient libres et en état d’être mariée, sans quoi les ecclésiastiques d’ici font difficulté de leur conférer ce sacrement, on pourrait prendre la même précaution pour les hommes veufs. Et cela devrait être du soin de ceux qui sont chargés des passagers.”(<http://collectionscanada.gc.ca> 캐나다 도서관 자료집 MIKAN 3037238 참조)

40) “J’ai aussi donné ordre de vous envoyer des certificats de lieux où les dites filles seront prises, qui feront connaître qu’elles sont libres et en état de se marier sans difficulté.”(캐나다 도서관 자료집 MIKAN 3037252 참조)

전체 여성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그 숫자에 있어서도 오늘날 퀘벡 시민의 조상을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Encyclopédie de la patrimoine culturelle de l'Amérique du nord). 1663년 이전 캐나다는 단지 3000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었으나 왕의 딸들의 이민이 끝나가는 1673년 경에는 거의 세배에 이르게 되고 1670년대 말에는 프랑스 본토에서보다 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녀들이 퀘벡사회의 인구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했는지를 말해준다. 이점에서 그녀들에게 ‘퀘벡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절대로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녀들의 공으로 돌려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서 프랑스어의 보급이다. 1660년대 누벨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와의 접촉이 쉽지 않았고 그 지역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런데 프랑스 출신의 왕의 딸들은 그녀들끼리는 물론, 남편과 이웃들과의 대화를 위해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프랑스어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어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그녀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트와 리비에르와 비예 퀘벡에는 그녀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판이 세워졌으며, 몬트리올에는 ‘왕의 딸들’이라는 레스토랑(Les filles du Roy)이 성녀 마그리트 수녀가 세운 교회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퀘벡을 대표하는 맥주, ‘블롱드 la Blonde de Chambly d'Unibroue’는 대서양을 건너온 왕의 딸들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곧 누벨 프랑스의 남성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고 오늘날의 퀘벡이 있게 해준 장본인들인 그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2013년에 왕의 딸들이 누벨 프랑스에 온지 3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축제들이 열린 것 또한 그녀들이 캐나다 역사에서 누려야 할 가치에 대한 재평가의 발로였던 것이다.

IV. 나가며

1663년은 누벨프랑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오늘날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모태가 되는 ‘왕의 딸들’을 태운 ‘에글르 도르

Aigle d'or'호가 대서양을 건너 퀘벡에 정착한 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결혼할 여인들'이라 불렸던 왕의 딸들은 식민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프랑스 여인들을 이주시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인구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루이 14세의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것이었으나 그녀들이야말로 눈 덮인 거친 미지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의 퀘벡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한 선구자이며 동시에 퀘벡인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왕의 딸들은 '기쁨을 주는 여인들filles de joie' 혹은 '행실이 나쁜 여인들 filles de mauvaise vie'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오랫동안 세간에서 잘못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프랑스와 퀘벡이 공동으로 '왕의 딸들의 역사 단체(la Société d'histoire des Filles du Roy)'를 건립하고 그녀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퀘벡과 프랑스에서의 그녀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비록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여 왕의 딸들에 대한 소개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왕의 딸들, 그녀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들이 누벨 프랑스에서 행한 역할에 기초해 볼 때, 그녀들에게 걸맞은 호칭은 '퀘벡의 어머니'이며 프랑스어가 대서양을 건너 퀘벡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프랑스어의 보급자'라고 하겠다. 그녀들은 누벨 프랑스의 운명을 바꾸어놓은 선구자로서, 또한 오늘날 대다수 퀘벡 시민의 어머니로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Colloque sur les Filles du Roy, coffret DVD et CD, Société d'histoire des Filles du Roy, 2008. (disponible à la librairie Mots et Merveilles, 63 Boul. St-Marcel, Paris 13e)
- DUMAS, Silvio, *Les filles du roi en Nouvelle-France : étude historique avec répertoire biographique*, Québec, Société historique de Québec, 1972.
- HARVARD, Gille, *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Paris, Flammarion, 2008.
- LANCTÔT, Gustave, *Filles de joie ou filles du roi : études sur l'émigration féminine en Nouvelle-France*, Montréal, éditions Chanctecler, 1952.
- LANDRY, Yves, *Les filles du roi au XVIIe siècle, Orphelines en France, pionnières au Canada*, Montréal, Edition Leméac, 1992.
- _____, "Les filles du roi Émigrées au Canada au XVIIe Siècle, ou un exemple de choix du conjoint en situation de déséquilibre des sexes," *Persée*, 1990.
- LAHONTAN, Louis-Armand (le baron) *Voyages du Chevalier de La Hontan dans l'Amérique*, La Haye, 1704.
- FOUNIER, Marcel, "Des Filles du roi qui n'en sont probablement pas?", *Mémoires de la Société généalogique canadienne-française* vol. 65, cahier 281, automne 2014.
- MAUD, Sirois-Belle, "Les Filles du Roy, des bords de Seine au Saint-Laurent," *Mémoires vives*, Commission franco-québécoise sur les lieux de mémoires communs, Bulletin n° 32, juin 2011.
- POULET, Georges, *Histoire : Saint-Pierre-et-Miquelon*, Paris, 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 [<http://209.205.50.254/encyspmweb/gp>].
- Rél Ouellet, "Adario : le Sauvage philosophe de Lahontan," *Québec français* n° 2, 2006.
- TRUDEL, Marcel, *Mythes et réalités dans l'histoire du Québec*, tome IV, Montréal, Éditions Hurtubise, 2009.
- <http://www.republiquelibre.org/cousture/CARTIER.HTM>
- <http://lesfillesduroy-quebec.org/>
- http://www.axl.cefan.ulaval.ca/francophonie/HISTfrQC_s1_Nlle-France.htm#2.4
-
- http://www.axl.cefan.ulaval.ca/francophonie/Nlle-France_acc.htm

<http://bv.alloprof.qc.ca/h1141.aspx>

<http://www.pch.gc.ca/fra/1363629314164/1363629390521>

<http://recherche-search.gc.ca/rGs/>

<http://www.lapresse.ca/le-soleil/actualites/societe/201308/07/01-4677979-fetes-de-la-nouvelle-france-les-filles-du-roy-a-la-maison.php>

❖ ABSTRACT

French Women Diaspora: King's Daughters in Nouvelle France

Kim, Kyung-Rang

"The King's Daughters' is referring to the approximately 900 young French women who immigrated to New France between 1663 and 1673. This program was sponsored by Louis XIV. The program was planned to increase New France's population both by encouraging the female immigrants to settle there and by promoting marriages, family formations and the births of children.

Marguerite Bourgeoys was the first person to use the expression called as 'filles du roi' in her writings. She was the French foundress of the Congregation of Notre Dame of Montreal in the colony of New France which is now part of Quebec.

After agreeing to marry, the couple took a marriage contract directly in front of a notary and the wedding ceremony had generally been held within possible rapid time. The processes of the choice of husband and the marriage would officially be held in the church. By the year 1672, the population of New France had risen to 6,700 from 3,200 in 1663.

Although the Filles du Roi represent only 8% of the total immigrants to Canada under the French regime, they account for nearly half of the women who immigrated to Canada in the colony's 150-year history.

'King's Daughters' must be correctly assessed as 'Mother of Quebec' and 'Propagator of the French language' in the history.

Key Words

왕의 딸들, 디아스포라, 누벨프랑스, 퀘벡, 조상

King's Daughters, diaspora, New France, Quebec, ancestor

82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 6.)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